

무더위 한방에 훅훅 숲속서 힐링 氣 팍팍



전국 첫 한방 건강체험지 '산청 동의보감촌'

경남

경남 산청군 금서면 왕산과 필봉산 기슭에 자리 잡은 동의보감촌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방을 주제로 한 건강체험 관광지다. 산청 IC에서 승용차로 불과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이곳은 엑스포주제관, 한의학박물관 한방기체험장, 한방테마공원, 동의분가, 한방자연휴양림, 본디물한의원, 약초 판매장과 숙박시설 등 한방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통해 전세계에 그 가치를 알린 바 있다. 118만m에 이르는 부지에는 휴양림이 80만m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약 30만m는 관광지가 조성돼 있으며,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열린 2013년에는 21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 이듬해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았고,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61만명이 찾았다. 동의보감촌은 올해 6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의보감촌은 기존 관광지 외에 향노화 힐링센터, 생태학습장 조성, 숲속 수영장, 신재생에너지 교육장, 다목적 시설 등을 추진 계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위)동의보감촌 내 동의전에서 관광객들이 한방 티테라피 체험을 하고 있다. (아래)산청군 동의보감촌 내 동의전에서 관광객들이 한방온열체험을 하고 있다. /경남신문 성승건 기자

엑스포주제관·기체험장·한방테마공원

온열체험·한방 티테라피·한옥 스테이

휴양림 속 한방 관련 다양한 체험시설

9월 15~24일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

◇건강을 찾는 여행, 힐링이카데미 =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운영하는 '힐링이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다. 한방온열체험을 비롯해 기혈순환체조, 한방 티테라피, 동의보감촌 탐방, 몸을 충전하는 건강발상, 인문학 특강 등 10여개에 이르는 프로그램이 하루 또는 수일에 걸쳐서 진행된다. 주로 20~30명 정도의 단체 여행객이 대상이다.

기체험, 기혈순환체조, 힐링발상, 동의보감촌 탐방, 약초스파와 배꼽왕뜸, 약침만들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동의분가 한방체험' 등으로 구성된 '1일 일정표'와 숙박과 오곡현미빵만들기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1박2일 일정표' 그리고 이를 숙박과 조금 더 추가된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2박3일 일정표'까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방문객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한방 온열체험과 한방 티테라피다.

먼저 한방 온열체험은 따뜻하게 데운 온열 매트와 알 방식에 몸을 눕히고 다시 담요로 덮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체

험이다. 해독으로 몸을 열고 긴장을 푸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방 티테라피는 약초차의 명인인 윤경순(58)씨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힐링이카데미 참가자들에게 직접 만든 차를 소개하고 마시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따뜻한 약초차를 마시면서 한방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듣다보면 어느새 더위가 물러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기(氣)'의 집합소, 한방기체험장 = 동의보감촌이 위치한 곳은 좋은 기(氣)를 받을 수 있는 명소로 불린다. 백두대간을 타고 험하게 내려와 남해바다를 바라보며 멈춰다 휘몰아쳐 지리산 끝 왕산자락에 그 기운을 고스란히 풀어 놓았다 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방기체험장에 설치된 석경(기 받는 바위)과 귀감석(기를 모으고 받는 곳, 온 가족의 무병장수, 소원 성취를 이뤄 준다는 명소), 한방기체험장 마당에 놓인 거대한 식수대인 복석정 등을 통해 좋은 기를 배로 느낄 수 있다.

또한 기체조와 명상, 온열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동의전을 비롯해, 국제 제작에 관계되는 일을 한 작업공간인 전각전, 사재정, 해민루 등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산청 한방약초축제, 올해 9월 중순 열린다 = 올해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오는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청 축제광장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1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산청한방약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에서 2013년 우수축제와 2015년 최우수축제로 지정된 명실상부한 산청 대표 축제를 넘어 전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 기간에는 지리산 자생약초와 산청군서 재배하는 약초를 접할 수 있고, 한방 무료진료를 비롯한 다양한 한방 관련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약선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다.

올해는 체험행사 프로그램으로 해민서 한방점 무료 진료를 비롯해 사상제질 및 스트레스 진단체험, 정광들 약초캐기 등 각종 한방건강체험이 예정돼 있다. 또 지리산청정공정터가 운영돼 한방향도음식 판매장터, 약초 및 한방가공식품 판매장터, 산청약초시장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청공예협회 공예품과 지리산국립공원 사진, 한국서예협회 작품 전시 행사가 마련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고휘춘 경남신문 기자



新韓道游覽은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위부터 '산청 9경' 중 제3경 황매산 절벽, 제4경 구형왕릉, 제5경 경호강, 제6경 남사예담촌. <산청군청 제공>

'산청 9경' 중 놓치면 후회할 명소

동의보감촌만으로 아쉽다면 산청 '9경'을 돌아보길 추천한다. 동의보감촌은 역시 산청의 대표적인 9곳의 경관 중 하나로 꼽히며 그 외에도 8곳의 대표적인 경치가 산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제1경 지리산 = 천왕봉사계절 아름다운 풍광과 일출을 지닌 지리산 천왕봉도 산청에 자리 잡고 있다.

▲제2경 대원사 = 계곡대원사 계곡은 깊고 울창한 수림과 반석이 어우러져 신비로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계곡이다.

▲제3경 황매산 = 철쭉산청군 범평리에 위치한 황매산은 한뫼산으로 큰(넓은) 산이란 뜻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후에 한자어로 바뀌면서 황매산이 됐다.

▲제4경 구형왕릉 = 국내 유일의 돌로 쌓은 왕릉, 구형왕릉. 이 능은 가야 10대 임금인 구형왕의 무덤으로 전해지고 있는 돌무덤이다.

▲제5경 경호강 = 강폭이 넓은 데다 큰 바위가 없고 굽이굽이에 모래톱과 잔돌들이 퇴적돼 있어 유속은 빠르지 만 소용돌이치는 급류가 거의 없어 새로운 수상레저인 래프팅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제6경 남사예담촌 = 지리산 초입에 자리 잡은 남사예담촌은 안동화마을과 더불어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한옥마을이다.

▲제7경 남명 조식 = 유적지조선 중기의 유명한 유학자인 남명 조식의 유적이다. 조식 선생은 많은 벼슬이 내려졌으나 모두 거절하고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평생을 보냈다.



(위)피톤치드 삼림욕, (아래)한방 힐링타운 동의분가는 동의보감촌 서쪽에 위치한 한옥마을로써 피로에 지친 현대인의 심신을 치유하기 위한 공간이다. <동의보감촌 제공>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로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십니다!

-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한식당